

금강 물줄기가 빚어놓은 갯까지 비경

글 김동정 _ 르포작가

우리나라 중심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금강은 그 역사만큼이나 긴 물줄기다. 전북 장수군 신무산(896.8m) 북동계곡에서 발원해 무려 400km가 넘는 길을 달려 군산을 거쳐 서해바다로 흘러간다. 중간 중간에 정자천, 주자천, 남대천, 봉황천, 심천, 보청천, 갑천, 미호천, 유구천, 논산천 같은 크고 작은 지류를 만나는데 금강하구둑에서 잠시 댐을 둔 뒤 서해에서 그 종지부를 찍는다. 완만하게 굽이치며 흐르는 모습이 마치 비단과 같다 하여 비단 금(錦) 자를 써서 금강이라 부르고 있다.

장수에서 흘러온 금강의 물줄기는 무주에서 무주구천동, 영동에서 양산팔경(陽山八景), 부여에서는 '백마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면서 백제의 흔적인 낙화암을 만들었다. 또한 서천군 마서면과 군산시 성산면을 연결하는 금강 하구둑은 바닷물과 민물이 왕래하며 그 옆에 드넓은 갯벌과 갈대 습지를 만들어 놓았다.

이렇듯 다양한 생태계를 보여주는 금강이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물 빛이 예전 같지 않고 더욱이 하구둑의 건설로 물길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아 하천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금강이지만 이로운 점이 더 많다. 하구둑이 생김으로써 바닷물의 역류를 막을 수 있어 연간 365만 톤에 이르는 용수(농업, 공업, 생활용수)의 확보와 여름철 홍수를 조절하고 염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전북과 충청 지방의 육상 교통로가 확보되어 접근성이 편리해졌고, 볼거리 또한 많아 연중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자연의 보고, 금강 갯벌

하구둑 옆으로 펼쳐진 갯벌은 자연의 보고이다. 미세한 입자들이 모인 갯벌 1그램 안에는 수억 마리의 플랑크톤이 살고 있다. 또한 갯지렁이, 새우, 게, 백합, 바닷가재, 꼬막, 바지락, 민챙이, 고둥 같은 다양한 생물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런 생물들은 진흙 속으로 들어가 살면서 진흙에 섞여 있는 미생물을 잡아먹고 산다. 이

과정을 통해 갯벌은 본래의 기능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갯벌에서 알을 낳고 먹이를 잡아먹으며 살아간다. 따라서 갯벌을 없애면 물고기의 수도 급속히 줄어들어 결국 생태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철새와 푸른 갈대밭이 펼치는 장관

또한 금강 하구둑은 철새를 아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가장 많은 철새는 청둥오리와 가창오리, 붉은부리갈매기 등이다. 천연기념물인 개리, 큰고니, 고니, 두루미도 볼 수 있다. 해마다 겨울이면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날아와 장관을 펼친다. 군산시에서는 이런 철새들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전망대도 마련해 놓았다. 금강 하구의 숨은 비경 중 하나는 서천군 신성리의 갈대밭이다. 영화(공동경비구역)의 배경이 된 뒤로 연일 많은 여행객들이 찾고 있다. 푸른 갈대와 역새들이 강바람에 산들거리는 모습이 환상적이다. 이곳 갈대밭은 폭이 200m, 길이가 1km가 넘어 약 7만평의 규모를 자랑한다.

금강이 빚어놓은 절경, 양산팔경

금강이 빚어놓은 또 다른 절경, '양산팔경' 과 '무주구천동' 이다. 양산팔경은 굽이굽이 흐르는 금강을 배경으로 영동군 양산면 일대

에 흠어져 있는 여덟 곳의 명승지를 가리킨다. 천태산 동쪽 기슭의 천년고찰 영국사(누교리), 옛날 봉황이 둥지를 틀었다는 봉황대(수두리), 해넘이가 아름다운 비봉산(가곡리), 강변의 높다란 대(臺)위에 노송과 정자가 어우러진 강선대(봉곡리), 시인묵객들의 쉼터였던 함벽당(봉곡리), 울창한 숲속 한가운데 자리한 여의정(송호리), 금강 한복판에 우뚝 솟은 용암(송호리), 조선시대 서당인 자풍당(두평리)이 그것들이다.

양산팔경의 제1경은 영국사다. 절을 에워싼 천태산은 '충북의 설악'이라 불릴 만큼 수림이 울창하고 산세가 빼어나다. 영국사로 오르는 산길은 가파르지 않아 그윽함이 일품이고, 중간 중간에 설만한 암반이나 계곡물이 있어 땀을 식힐 수 있다.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쉬엄쉬엄 오르다 보면 놀직한 암반을 타고 내리는 3단폭포가 나타난다. 3단폭포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야트막한 고개 하나를 넘으면 천태산을 베게 삼고 누워 있는 영국사의 전경이 한눈에 잡힌다. 찾아오는 이 누구라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절집에 들어서면 속세에서 얻은 마음의 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느낌이다. 고풍스런 맛은 별로 느낄 수 없지만 절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223호)는 이 절의 역사를 짐작케 해준다. 높이가 35m, 둘레 11m의 우람한 몸체도 놀랍거니와 사방으로 뻗어나간 가지와 땅 위로 드러나 비틀린 뿌리는 가히 장관이다. 무수히 매달린 이파리는 가을이면 영국사를 온통 노랗게 물들인다. 이 은행나무는 천재지변이나 나라에 큰 변고가 있을 때 소 울음소리를 내며 운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영국사에서 나와 금강 줄기를 따라가 보자. 비가 흡족하게 내리지 않아 수량이 예전보다 적지만 유유히 흘러가는 금강은 예나 이제나 그 모습 그대로다. 양산땅을 관통하는 금강은 양강(陽江)으로도 불리는데, 곳곳에 절경을 만들어 놓았다. 송호리의 송림(松林)도 그 중의 하나. 강변에 수천 그루의 소나무가 들어차 있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송호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이 숲밭은 여름철 야영장으로 쓰인다.

울고 왔다 울고 가는, 무주구천동

무주구천동은 덕유산의 주봉인 향적봉에서 발원하여 무주읍을 관통해 금강으로 흘러드는 물줄기다. 물빛이 맑기도 하지만 극심한 가뭄에도 물이 잘 마르지 않는다. 물이 풍부하다는 것은 그만큼 정기(精氣)가 충만하다는 뜻일 게다. 구천동 골짜기를 흐르는 냇물이 바로 설천(雪川)이다. 눈처럼 하얗다는 뜻으로 덕유산에 수행자들이 하도 많이 몰려와 그들이 씻은 쌀뜨물이 냇물을 하얗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전해온다.

흔히들 무주를 '울고 왔다 울고 가는' 고장이라 말한다. 이는 들어올 때는 하늘과 산이 전부인 첩첩 산골이라서 울고, 떠날 때는 구천동의 아름다운 비경을 더는 볼 수 없어 아쉬워서 운다는 얘기다. 오늘날 무주는 전북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군(郡)이면서 한편으로는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천혜의 관광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이 한적한 고장이 관광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순전히 '구천동 33경' 때문일 것이다. 

찾아가는 길

경부고속도로 옥천·C-4번 국도-이원면-501번지방도-개심저수지-울치-양산면 누교리(송호리 금강). 영동읍내에서 영국사 입구를 거쳐 누교리, 명덕리 방면으로 가는 버스가 하루 여섯 차례 있다(30분소요). 서해안고속도로 군산C(706번 지방도)-서포리-금강하구연. 서천이나 군산에서 금강하구둑까지 시내버스 30분 간격 운행(25분소요). 장항에서 군산행 버스 이용. 하루 16회 운행. 경부고속도로 - 대진고속도로 - 무주 나들목 - 무주구천동(2시간소요), 부산 - 대진고속도로 - 무주 나들목 - 무주(2시간 30분소요), 대구 - 88고속도로 - 대진고속도로 - 무주 나들목 - 무주 구천동(1시간 30분소요), 전주 - 26번국도 - 진안 - 30번국도 - 안천 - 무주구천동(1시간 10분소요), 서울에서 무주까지 버스 이용(1시간 간격). 전주, 대전, 영동에서 구천동까지 버스가 수시로 있다.



- ▲ 금강하구둑 주변에 펼쳐진 갈대
- ▶ 금강하구둑
- ▼ 무주구천동계곡

